

 기획재정부		보도자료	
보도일시	2021. 11. 18.(목) 15:30	배포일시	2021. 11. 18.(목) 15:00
담당과장	기획재정부 지역경제정책과 박지훈 (044-215-4570)	담당자	김상엽 사무관 (ksy7715@korea.kr)
	기획재정부 요소수 대응 실무지원단 문경호 (02-2100-8771)		주해인 사무관 (haein1216@korea.kr)
	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 이승한 (044-215-4530)		김태웅 서기관 (kimtw41@korea.kr)
	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 최진영 (044-200-2211)		안혜리 사무관 (gloria7@korea.kr)
	외교부 동아시아경제외교과 염보영 (02-2100-7675)		천성희 사무관 (shchun19@mofa.go.kr)
	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채수경 (044-205-3101)		전용우 사무관 (braverain88@korea.kr)
	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이종태 (044-201-1891)		서정우 사무관 (quepasa@korea.kr)
	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총괄과 정석진 (044-203-4910)		임경섭 사무관 (kslim00@korea.kr)
	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정성훈 (044-202-2550)		박준희 사무관 (swer21@korea.kr)
	환경부 교통환경과 황인목 (044-201-6920)		송태곤 사무관 (stgtoto1@korea.kr)
	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조태영 (044-201-4027)		김병채 서기관 (bcheck@korea.kr)
	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허만욱 (044-200-5710)		양도형 사무관 (ydh87@korea.kr)
	국세청 조사2과 김승민 (044-204-3602)		정해동 사무관 (jung0506@nts.go.kr)
	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한민 (042-481-7810)		조광선 사무관 (kwangseoncho@korea.kr)
	조달청 원자재비촉과 노배성 (044-215-2770)		전연수 사무관 (jys21c@korea.kr)
	경찰청 장비담당관 김성구 (02-3150-2036)		김종애 경감 (k17165@police.go.kr)
	소방청 장비총괄과 김문용 (044-205-7680)		권영철 소방경 (sakyc@korea.kr)

제11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 개최

- ☐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1.18(목) 8: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*를 개최하였음

* 국무조정실, 외교부, 행정안전부, 농림축산식품부, 산업통상자원부, 보건복지부, 환경부, 국토교통부, 해양수산부, 국세청, 관세청, 조달청, 경찰청, 소방청 등 참석

- 정부는 「긴급수급조정조치」 고시에 따른 신고 결과 및 100여개 중점 유통 주유소 재고 현황을 토대로 요소수의 생산·유통·배분 등 물량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, 해외물량에 대해서는 반입·계약 등 진행상황을 면밀히 확인하였음
- 아울러, 요소수 이외에도 경제안보와 밀접한 품목들에 대한 경제안보 핵심품목 공급망 관리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였음

□ 첫째, L社를 포함한 주요 생산업체의 가동률이 제고됨에 따라 5대 주요업체의 생산 물량*이 일평균 요소수 소비량(약 60만 리터)을 지속적으로 상회하면서 시장이 안정화되는 분위기

* 5대 기업 생산량(단위: 만 리터) : (11.13) 27 (11.14) 56 (11.15) 68 (11.16) 100 (11.17^㉞) 92

- 환경부는 주요 5개 생산업체의 원활한 생산 지원을 위해 7개 공장에 전담관을 지정하고 매일 방문하여 현황을 파악해 애로사항을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가동중
- 한편, 11월 17일 100여개 중점 유통 주유소*의 입고량 및 판매량**도 일평균 소비량(약 60만 리터)의 2 β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중점 유통 주유소에 대한 전반적인 공급·유통 등 수급 역시 안정화 추세

* 송산포도 휴게소, 정안알밤 휴게소 등 5개소를 추가하여 총 109개 지정

** 17일 중점 유통 주유소 입고량 33.4만 리터, 판매량 38.9만 리터, 재고량 21.7만 리터

- 한편, S社의 차량용 요소 700톤으로 L社가 생산하여 중점 유통 주유소에 공급중인 180만 리터는 11월 17일 84개 주유소에 31.6만 리터가 공급되어 누적(11.12~11.17) 112.7만 리터가 배송 완료되었음

- 100여개 중점 외 주유소에 대한 요소수 공급도 전체적인 생산량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- 환경부 신고 시스템상 신고한 주유소의 전체 공급량에서 100여개 중점 유통 주유소에 대한 공급량을 제외한 수치는 16일 약 30만 리터까지 증가한 것으로 추정

* 100대 외 공급량(만 리터) : (11.13) 5 (11.14) 5 (11.15) 29 (11.16) 30

□ 둘째, 요소수 수요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11월 16일부터 시행된 100여개 중점 유통 주유소에 재고현황 공개도 1일 2회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주유소의 화물차 대기줄이 줄어드는 등 보다 안정화되는 추세

- 아울러, SKT 티맵 등 민간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주유소 정보를 단계별로 확대 제공*하는 등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점검·보완하여 소비자의 사용상 편의를 제고해 나갈 계획

* (1단계) 중점주유소 위치 및 재고량 1일 2회 제공 → (2단계) 중점 주유소 위치, 실시간 재고량 및 가격 → (3단계) 정보제공 주유소 개수 확대

□ 셋째, 정부는 다양한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 중국 내 수출 전 검사 미신청 물량의 조속한 신청을 독려하고 있으며, 여타 국가에 대한 물량확보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

- 중국이 수출절차 진행을 확인한 기 계약물량 중 11월 17일 기준 11,310톤이 수출 전 검사 신청이 완료된 것을 확인
- 아울러, L社は 러시아와 차량용 요소 320톤을, J社は UAE로부터 차량용 요소수 150만 리터를 추가로 계약
- 한편, K社가 베트남에서 수입하는 요소 198톤은 전일 (11.17) 19시 인천항을 통해 도착하였으며, 해당 요소는 품질검사를 거쳐 차량용으로 활용될 예정

- 동 물량은 중국 요소 수출검사 강화 조치 이후 초기단계부터 기업과 정부가 협력해 발굴·수입하여 국내 도입된 첫 케이스로, 정부는 신속한 국내 도입을 위해 전담관을 배정하여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, 신속통관, 품질 검사기간 단축, 외교채널 활용 등 기업의 애로사항을 범정부 대책에 반영하여 지원한 바 있음
- 이러한 해외 확보물량도 신속히 국내에 반입되고 있으며 이번달 중으로 차량용 500톤 등 요소 8,800톤, 차량용 요소수 28만 리터가 추가로 반입될 예정
- 마지막으로, 그간 정부는 요소수 수급안정을 위한 대응과 함께 투 트랙(two-track)으로 글로벌 공급 충격에 대한 근원적 대응 차원에서 대외 의존도 비중이 높은 품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수급안정을 위한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계속해서 준비해 왔음. 금일 회의에서는 그간 관계부처 중심으로 준비해 온 경제안보 핵심품목 공급망 관리방안을 논의하였으며,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
- ① 우선, 대외 의존도 비중이 높은 3~4,000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수출국 수출규제, 글로벌 수급동향 등 위험요인들을 사전에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주요 품목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조기경보 시스템(Early Warning System)을 다음주 중부터 가동하겠음
- 재외공관·KOTRA 등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수출국의 생산·수출 관련 특이사항 발생시 바로 소관부처 등 국내로 통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, 대외의존도, 관리시급성 등에 따라 대상품목을 등급화하여 리스크가 더 높은 품목은 점검 주기를 더 짧게 하는 등 차등화하여 효과적으로 관리할 계획임

② 다음으로, 범정부 경제안보 핵심품목 TF(기재부 1차관 주재)를 11월중 신설하여 전체 3~4,000개 품목 중 관리시급성이 높은 핵심품목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속히 지정하겠음

- 정부는 1차적으로 대외 의존도 비중이 크게 높고 주력산업 활용과 직결되어 대응 필요성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20개의 품목*을 우선적 관리대상 품목으로 이미 선정 완료하였으며, 요소수 수급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중심으로 동 품목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중임

* (예) 마그네슘, 텅스텐, 네오디뮴, 수산화리튬 등

- 나머지 핵심품목은 ①국내경제 영향, ②대외 의존도 과다, ③단기적 시급성, ④수입선 전환 또는 국내생산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선정하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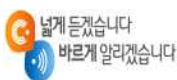
- 20대 품목에 이어 금년말까지 100~200대 품목을 먼저 지정하고, '22년 1분기까지 핵심 품목을 추가로 지속 발굴하는 등 계속해서 지정품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

③ 지정한 핵심 품목에 대해서는 비축확대, 수입선 다변화, 국내생산 전환, 국제협력 등 다각도의 맞춤형 수급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

- (비축 확대) 긴급수급조절물자 지정 등을 통해 조달청 비축 대상을 현재의 금속 위주에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물자 등으로 확대하여 희소금속 비축물량을 확대하고 품목 추가 확대를 검토하는 한편 민간이 경제안보 측면에서 추가재고 보유시 보관비용 등 지원도 강구

- (수입선 다변화) 수급위험 현실화 품목 중심으로 신속히 대체수입국을 확보하고 수입선 다변화에 따른 기업의 물류비 증가분 지원, 할당관세 적용, 수입금융 지원 확대 등을 검토하겠습니다

- (국내 생산기반 확충) 경제안보 차원에서 최소한의 국내 기반 확보를 위해 첨단품목에 대해서는 기술 개발 등 R&D 지원, 범용품목에 대해서는 시설자금 지원을 포함한 세제·금융 지원 등을 추진하고 국내생산 독려를 위한 공공판로 확대 병행
 - (국제 협력) 양자·다자 협력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필요시 에너지 국제유통시스템과 같은 품목간 상호유통시스템 구축도 검토
- ④** 경제안보 핵심품목 관리를 위해 11월중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산하에 범부처 경제안보 핵심품목 TF를 운영하여 주기적으로 수급·관리 동향을 점검하고, 필요시 주력 제조업 중심의 현행 소재·부품·장비 경쟁력위원회와도 적극 협업
- 상기 맞춤형 지원방안 중심의 경제안보 핵심품목 수급 안정화 방안은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



기획재정부 대변인

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@korea.kr

